사 설

공약이행 지켜보겠다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하여 정부와 여당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 지방 재 보선 선거를 앞둔 불심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적어도 그러한 정부와 여당의 성의를 이끌어 낼 만큼 불교계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고, 그것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겠다.

그간 불교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불만과 분노를 표한 여러 사안들의 본질을 따져 보면, 모두 민족종교로서의 불교의 위상에 대한 몰이해와 종교편향성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불교는 현실에서 단일 종교로서는 가장 많은 국민을 신도로 하고 있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대부분을 그 속에 보존하고 지켜가는 종교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일에 대한 지원은 특정 종교로서의 불교와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혹 그것이 불교에 어느 정도 특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교가 민족문화 전통의 보존과 계승에 공헌하고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불가피한 일이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권들은 경제지상주의에 빠져 전반적으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자신의 종교에 집착하여 문화와 종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문맹조'인 행태를 저질러 왔다. 그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공평성이라는 강변 아래 결국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에만 불리한 법령들을 무리하게 제정하는 파행적 정치행태를 보여왔던 것이다.

구체적인 종교편향의 문제를 보면 과연 이 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종교다원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종교에 큰 영향을 끼칠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심이라는 말로 호도되거나,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끔 온 불교계가 분노에 휩싸여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끝까지 공적인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식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훼불사건 등도 단순한 종교 사이의 문제, 또는 개인적인 광신의 문제로 치부되어, 그 근본에 종교간의 전쟁으로까지 나아갈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를 전도의 자유로 착각하는 공격적 선교가 갖는 위험성,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극단적 양태가 훼불이라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불교계도 이러한 문제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불교계를 향한 공약이 한 특정 종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또 건전한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불교계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불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보다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한 큰 전망 아래서 정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자세에서 한 때의 불만이나 분노를 넘어서, 온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하며 그 이행을 끝까지 지켜보는 엄한 눈이 되어야 한다.

포교용 소책자 나온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11월 배포…군인 · 청소년등 대상 세분화

군인 청소년 환자 등 대상을 세분화한 포교용 소책자가 발간된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스님)은 22일 계층별 · 소집단 대상의 포교자료 발간 기획을 이달중 완료하고 11월 발간,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책자는 50쪽 안팎의 분량으로 제작되어 사찰과 불교단체를 통해 배포한다.

포교용 소책자 발간의 기획을 맡고 있는 포교연구실 김경호연구과장은 "현대사회의 포교는 대상에게 맞는 언어와 감각에 의한 새로운 포교매체가 필요하다"며 소책자 발간 의의를 설명하고, 군인 청소년 환자 재소자와 문화재사찰 관람객 등 5개 주제에 대한 책자를 우선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용 소책자에는 △환자를 위한 기도법 △발원기도문 △체험담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도법에는 본인과 가족이 함께 하는 기도요령 및 순서 준비물 등을 상세히 밝히는 한편 병문안을 갔을 때의 마음 자세, '병이 낫도록 부처님전에 기원하겠습니다' 등 위로의 말도 매우 구체적으로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포교용 책자는 일반인 및 초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수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 군인 환자 등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책자 발간은 포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일본 불교대학 미쓰다니 이사장대행(왼쪽)은 23일 송석구 동국대총장에게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쓰세요"

동국대에 日불교계 성금 속속 답지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일산에 건립하고 있는 불교종합병원에 자매대학인 일본 불교대학이 성금을 보내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불교대학 미쓰다니 고오쇼(水谷幸正) 이사장대행이 23일 동국대를 방문, 재단이사장 녹원스님과 송석구 총장에게 1백60만엔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일본 불교대학 재단측에서 내놓은 1백만엔과 (주)송원흥산의 50만엔 미쓰다니 고오쇼 이사장대행의 10만엔 등으로 마련됐다.

미쓰다니 이사장 대행은 23일 기금전달식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동국대가 발원한 불교종합병원에 대해 일본 불교계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해 불교인으로서 불교종합병원 건립이 원만히 회향되도록 힘 닿는데까지 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일본불교대학은 지난 5월에도 3백만엔의 기금을 보냈었다.

한편 동국대는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일본 불교계의 성금이 계속 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일본불교대학 외에 류코쿠(龍谷)대학에서 3백30만엔, 오따니(大谷)대학이 1백만엔, 동북전산기학교가 1백만엔, 정토진종 본원사파에서 30만엔, 정토종 문주가 30만엔, 재일교포 왕청일씨가 1백만엔 등 모두 1천1백50만엔의 기금이 동국대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한일 불교대학총장 11월 협의체 구성

한 · 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 협의체가 오는 11월 구성될 전망이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1월2~3일 '한 · 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 합동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용곡대(龍谷大) 등 일본 10개 불교철학계 대학총장과 동국대를 비롯 위덕대, 원광대, 중앙승가대 총장으로 구성될 한 · 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 협의체는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위덕대 '사학 위상'

대학본부 8월초 개관 학술종합정보원도 착공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가 8월초 대학본부 개관과 함께 지역명문사학으로 거듭난다.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건립된 대학본부는 건평 2,888㎡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에 세계 각국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LAN시스템 등 각종 첨단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9월에는 인문사회관 완공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또 위덕대는 8월 초 중앙도서관, 전자계산소, 연구부서의 기능이 총합된 학술종합정보원 착공에 들어간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정보 · 전자종합시스템을 갖춘 학술정보원이 99년 8월 완공되면 위덕대는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면모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해인사 문제 풀자"

상림회 토론회 요구

성철스님 부도탑 건립과 각종 사업에 이의를 제기해 온 상림회가 해인사 종두소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상림회는 20일자로 발표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제하의 문건을 통해 작년부터 "상림회가 제기해 온 사중의 불사와 가야산 개발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해 종무소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인사의 제반 불사와 운영, 해인사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평화적인 토론회를 하안거가 끝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불교정보센터 '개통'

조계종 포교원등 8개단체 동참

다양한 불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불교정보센터(인터넷 주소=http://www.buddhism.or.kr/kbic)가 인터넷에 개설됐다.

조계종 포교원, 자비의전화, 설법연구원을 비롯한 8개 단체가 자료를 제공해 운영되는 불교정보센터(대표 최용원)는 22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시연회를 열고 10월경에 정식 개원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달 초부터 조계종 호스트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개설,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불교정보센터에는 불교신문과 주간불교신문 등 교계 신문의 기사와 설법연구원의 설법, 조계종 포교원의 불교입문 · 교리 ·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 등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또 도서출판 운주사의 불교서적 자료, 자비의전화의 상담사례와 불교단체 주소 · 전화번호 안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한국현대불교운동사〉, 선우도량의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 · 현대사〉 등 8개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8개 불교단체가 각 단체의 특징있는 자료를 결합해 불교 정보화의 공동작업 가능성을 밝게 했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불교정보센터'를 포함, 교계 최초의 불교종합정보센터인 현대불교신문 '부다피아'와 9월에 개통될 불교방송 홈페이지 등 규모있는 3대 인터넷사이트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특징적인 불교정보를 축적해 간다면 인터넷 포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공원공단예산 대폭삭감 전망

기획예산위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발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정부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혁신과 기준을 발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재정지원 대폭삭감'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위의 한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해 지원중단과 예산삭감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 온 결과 예산삭감 방안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히고 "삭감의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여유자금 29억원을 직원들에게 무이자 또는 2.5% 이자로 주택자금 등으로 대출 해주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주택대부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면목없습니다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銅 · 銅合金 · 板帶 · 管 · 棒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룡 합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btn국토사랑 캠페인 "btn 불교텔레비전은 이 땅을 사랑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은 공원형 납골당 회원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매장제도
· 시한부 매장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매장한 후 다시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토록 하는 법률화된 제도입니다.
■ 처음부터 깨끗하게 화장하여 공원형 납골당에 정성들여 안치하는 것이 고인과 가족들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철저한 영구적관리
영각사 극락 영묘전에서는 임종 발생 후 곧바로 화장 그리고 납골당 안치라는 토탈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안치 후에도 기제사는 물론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하며, 연중 하루도 빠짐없이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를 조석으로 봉행합니다.

총공사비 265억원
극락영묘전 내부는 현존하는 최고의 보존 시스템으로 현대과학이 응집돼 있고, 외부는 가족공원으로 언제든지 편안한 휴식과 조상님들과의 정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극락왕생의 문은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구 분	총 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납부일		19 . . .	19 . . .	1998. 10. 30
개인단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

※완공예정일 (1998 10 30) VAT 별도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btn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